

보도 일시	2023. 1. 26.(목) 11:00 < 1.27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26.(목)
담당 부서	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	책임자	과 장 박학희 (044-203-46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규 (044-203-4633)

## 수출 전진기지 자유무역지역,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

- 현장중심 “찾아가는 수출지원서비스” 본격가동 -  
 - 수출·투자 확대지원 24시간 콜센터 운영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이창양)는 1월 26일(목)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자유무역지역\*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유무역지역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\* 마산, 군산, 울산, 대불, 김제, 동해, 울촌

○ 금번 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투자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,

- 우리나라 수출 1번지인 자유무역지역의 22년 수출 실적을 점검하고, 23년 수출 플러스 10% 이상 달성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이날 회의에서 '23년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수출실적의 10%가 증가한 2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,

○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‘KF\* 수출투자확대지원단’을 구성하여 수출현장의 기업애로 및 투자 걸림돌 해소를 통해 수출 확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며,

\* Korea Free Trade Zone(자유무역지역)

- 연말까지 관리원을 중심으로 수출지원기관 공동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.

○ 수출기업의 대표적인 애로로 조사된 ①수출용 제조공장 확대, ②기술 사업화 지원, ③수출 도우미 활용, ④대규모 전시·수출상담회 지원 등에 215억 원을 투입하여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수출기업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「현장지원단」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

- 자유무역관리원(수출산업과)내 24시간 수출투자지원콜센터와 수출기업 대상 지역별 SNS 소통방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애로 해결을 지원키로 했다.

○ 아울러, 자유무역관리원 기능을 시설관리 위주에서 수출지원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고,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.

□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“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살펴보는 야전산업부가 되어야 한다” 강조하면서,

○ “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회복을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수출 전진기지인 자유무역관리원에서는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기업의 작은 애로사항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【붙임】 자유무역관리원장 간담회 개요

□ **추진 배경**

-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수출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, 우리나라 수출 1번지인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확대 방안 모색

□ **간담회 개요**

- (일시·장소) '23. 1. 26.(목) 14:00~15:00, 중회의실(13동 551호)
- (주요참석자)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, 혁신지원과장, 7개 자유무역지역\* 관리원장
  - \* 마산, 군산, 대불, 동해, 울춘, 울산, 김제
- (주요 논의 내용)
  - 자유무역지역 수출지원체계 강화 방안
  - 관리원별 수출 확대 방안

□ **시간 계획**

시간	소요	세 부 내 용	비고
14:00~14:05	05'	인 사 말	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
14:05~14:10	05'	수출지원체계 강화 방안	혁신지원과장
14:10~14:45	35'	'22년 수출 실적 및 '23년 수출 확대 계획	관리원장
14:45~14:55	10'	질의 및 답변	참석자
14:55~15:00	05'	맺 음 말	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